

# 김영록 지사, 예산처에 통합특별시 재정·정책 지원 건의

임기근 차관 면담 지방재정 강화 강조  
10년 이상 장기 재정지원 필요성 역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개선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 등 현안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시타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획예산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신속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시타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 핵심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합 지원금 20조원이 재정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치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성격을 갖는 만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방 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도 요청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해당 사업 재원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이양 전환사업 보전 재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5조8천200억원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인 8천300억원(14.4%)을 보전받고 있다. 올해 말 전환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해당 재원은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적용돼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되며 전남 등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전남은 5천억원 이상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과 낙후지역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 이양 전환사업의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익

산·여수 177.2km 굴곡 구간을 직선화·고속화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9천300억원 규모다. 202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경제성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동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이지만 경부선보다 운행 속도가 낮아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여수·순천권 관광 수요와 KTX·SRT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수요 등 지역 특성과 정책 효과가 예타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에타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과 전략적 자원 배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재정 기자

## 민주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패자부활전’

내일까지 남구1·북구2·광산3 선거구  
북구1은 추후 별도 추가 경선 진행키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추가 후보 선출과 본선 기호 결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7~28일 이틀 간 6·3지방선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남구1·북구2·광산3 선거구를 대상으로 추가 후보자 선출 및 순위 결정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친 총 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선거구의 낙선자 가운데 추가 1인을 선출하는 투표(10명)와 기존 경선 1위 후보자 간 본선 기호를 정하는 순위투표(6명)로 나뉘어 실시된다.

투표는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치러지며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결과는 28일 오후 7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경선은 광주시 광역의원 선거 사상 첫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로 의원 정수가 증원된 데 따른 것이다.

선거구별로 남구15명, 북구23명, 광산32명이 출마해 각 1명을 추가 선출한다. 윤종혜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온라인 투표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당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본선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후보를 결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역의원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북구1 선거구는 추후 별도 추가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피해자 지원 강화

전남도는 지난 24일 도청 재난종합지원실에서 “2026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호남권트라우마센터 등 관계 기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해 총 839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일상 회복 치유 프로그램도 6차례 운영, 104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5년부터 2028년 4월까지의 재난 심리지원 성과와 올해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시원 기자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산업 르네상스 TF 2차 회의에 참석해 관계 기관과 통합 이후 단일 경제권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산업 르네상스 TF’ 가동...통합 대비 산업 재편

광주시, 통합경제권 실행계획·비전 논의  
전략산업 중심 ‘新경제지도 구축’ 박차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산업 르네상스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단일 경제권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출범한 TF의 후속 조치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미래차 모빌리티진흥원, 한국광기술원 등 지역 산업을 이끄는 혁신기관들이 통합 이후의 실질적 협업 방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통합 시대에 걸맞은 특화 비전을 제시하며 산업 혁신 의지를 다졌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전남과 협력해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양자클러스터 공모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가 AI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AI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광주의 완성차 제조 역량과 전남의 소재·부품 및 해상풍력 등 에너지 기반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르네상스 TF를 산업 혁신의 지휘 본부로 운영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통합 환경에 최적화된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통합 시대를 맞아 관계기관들이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광주·전남 신(新) 경제지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도 도약하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2026 장성황룡강 음악힐링축제**  
장성군 Jangseong  
26. 5. 23. 토 ~ 5. 25. 월 장성황룡강변